

# 가짜뉴스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 및 제공에 대한 실험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Provision of Universal Lite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Fake News

이 정 미 (Jeong-Mee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3.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 및 제공 |
| 2. 이론적 배경 | 4. 결론 및 제언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의 개념과 정의를 오정보/허위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대사회가 가짜뉴스와 같은 정보왜곡으로 인한 사회 현실 왜곡,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대응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의 개념을 사실성과 속이고자 하는 의도성에 바탕해 살펴보고, 가짜뉴스의 생성과 파급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회 환경을 데이터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류의 정보접근과 활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서관계는 UN 2030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구축과 제공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데이터화 정도와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해당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항목 구성에 핵심이며 이런 이유로 보편적 리터러시는 각각의 사회가 가지는 데이터화 정도와 이용자에 따라 유연성있게 구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fake news focusing on misinformation/false information and is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our society can respond to the distortion of social reality and damage to democracy caused by information distortion such as fake news. To do this, the concept of fake news was examined based on the level of facticity and intention to device, and our social environment in which fake news was created and spread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datafication. In this environment, the library community,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human access to and use of information, argued that it should strive to establish and provide universal literacy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the UN 2030 agenda. The core of universal literacy education is to understand the society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data communication typ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tafication an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society. For this reason, it was concluded that universal literacy should be implemented flexib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datafication and users of each society.

키워드: 지속가능한 도서관, 가짜뉴스, 보편적 리터러시, 데이터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Sustainable Libraries, Fake News, Universal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Literacy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0-0215).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jmlee@swu.ac.kr / ISNI 0000 0004 6832 5178)  
논문접수일자: 2021년 1월 27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85-106,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085>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가짜뉴스라는 단어의 출현과 가짜뉴스 발생 현상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로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았을 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루머나 헛소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들 양쪽이 다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잘못된 정보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을 것이다. McIntyre의 말처럼 ‘뉴스’라는 단어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가짜뉴스’ 또한 생성·배포되는 현상이 함께 존재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McIntyre 2018).

그러나 가짜뉴스는 최근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그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된 소셜미디어의 사용과 이를 통해 유통되는 확인 불가능한 뉴스나 허위정보들에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뉴스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뉴스로 출현한 정보가 잘못된 정보이거나 조작된 정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급된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는 오정보(misinformation)와 특정한 의도에 의해 조작된 허위정보(disinformation)로 구별가능하다. 가짜뉴스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 눈여겨볼 부분으로 오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다. 이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의도성이 없는 오정보를 가짜뉴스로 포함할 것인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짜뉴스의 개념적 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다(김민정 2019).

이렇듯 가짜뉴스의 개념정의에 대한 논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차치하고 가짜뉴스가 주는 현실의 폐해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그 심각성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염성 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현실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때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생각에 소금물 스프레이를 뿌린 한 종교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마시면 눈이 멀고 사망할 수 있어 극도로 위험한 메탄올을 마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식의 뉴스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하기도 했다(동아시아연스 2020).

가짜뉴스의 발생과 과급,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진정한 사회문제는 가짜뉴스의 과급에 따라 사회현실이 왜곡되고, 혼란이 발생하며, 급기야 대중의 의견을 왜곡하게 함으로써 다듬어진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되는 현실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양상은 결국 오늘날과 같이 데이터가 사회전반을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을 만드는 ‘데이터 사회’에서 데이터 생태계의 변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최근 학계에서는 개인이 정보 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타인에게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개념을 제시하며 디지털 불평등을 넘어 데이터 생태계에

서 데이터 격차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연구(김미경 2020)나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재해석을 바탕으로 사전예방적 시민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데이터시민권(data citizenship)에 관한 연구(Carmi et al. 2020) 등도 주목받고 있다.

급격한 확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우려와 심각성이 커지면서 가짜뉴스의 발생과 대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가짜뉴스의 오정보/허위정보를 판별하게 하는 대표적인 대처방법 중 하나는 팩트체크이다. 가짜뉴스가 생성된 후 정교한 사실확인 과정을 통해 가짜뉴스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가짜뉴스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가짜뉴스에 먼저(pre)노출되고 이후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거친 사실에 후(post)노출되는(김형지 외 2020) 시간적인 지연이 존재한다. 실제 가짜뉴스가 발생하고 전파되고 나면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팩트체크가 되기 전에 과급되어 버린다. 이후 자신이 받아들인 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시기에는 이미 한번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후에 사실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미 나 이외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짜같은 가짜뉴스가 전달된 후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팩트체크의 과정은 가짜뉴스가 발생한 이후 지점에서 오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은 선노출, 후팩트체크의 한계는 뉴스와 같은 공공의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대중의 리터러시(literacy, 문식

력, 문해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즉시 해당 뉴스의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력을 키워야한다는 것이 리터러시 강화를 이야기하는 연구들의 핵심이다. 많은 주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의 유사한 개념과 용어를 활용해 대중의 리터러시 증진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Mihailidis and Viotty 2017; Ireland 2018).

문헌정보학·도서관계는 전통적으로 대중의 리터러시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 왜곡 현상을 사전 예방 또는 사전탐지할 수 있는 시민 역량으로서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이에 힘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가짜뉴스의 만연이라는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보다 근간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고민하고 리터러시 차원의 문제로 연구와 실무를 확장해야만 하는 출발점일 수도 있다. UN이 주장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건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계의 역할과 사명의 중요한 핵심이라 할 때 가짜뉴스의 사회와 문헌정보학·도서관계의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강조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IFLA가 발표한 도서관계 행동강령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보편적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핵심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주 최근에는 AI기술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딤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 영상이 가짜뉴스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영상들은 일반인의 일반기술로는 전혀 식별하기 어려운 진짜 아닌 가짜이기에 해당 영상이 제공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진짜라 믿으며 맹신하는 사회 집단을 생성시키기도 한다(이민영 2020).

이처럼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더욱 어려운 가짜뉴스가 만들어져 사방으로 전파되어가는 현실을 살펴보면 가짜를 자각하고 판별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대중의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대중의 리터러시 교육 강화에 대한 주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1.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가짜뉴스를 품고 있는 정보사회의 이슈와 함의를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한 정보접근을 위해 IFLA가 제시한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과 제공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엇이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불러오는 이슈와 그 함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 연구문제 2.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보편적 리터러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가짜뉴스의 사회

#### 2.1.1 가짜뉴스의 개념과 정보

최근 가짜뉴스의 증가는 수치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확인하지 않고도 느껴질 정도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0-2020년 가짜뉴스의 증가추세(구글트렌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위에 존재하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의 '사실성의 수준'과 '속이고자 하는 의도'라는 두 가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김형지 외 2020).

Nielsen과 Graves(2017)는 대중들에게 뉴스와 가짜뉴스는 사실성의 수준이나 속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저 정도의 차이로만 인식되고 있다 주장한다(Nielsen and Graves 2017). 이는 사람들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구분해 뉴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저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뉴스 정도로 인식하는 것(Nielsen and Graves 2017) 이기에 특별한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대중의 가짜뉴스 판별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판별에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해당 뉴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신뢰성을 근간으로 오정보, 허위정보라는 두 개 정보유형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Wardle(2017)은 “가짜 뉴스”의 정의를 내리면서 가짜뉴스가 사용하는 정보의 유형을 오정보와 허위정보로 나누고 각각 속이려는 의도(고의성)에 초점을 두고 “부주의한 허위 정보 공유”로 오정보를 정의하는 반면, 허위정보는 “거짓으로 알려진 정보의 고의적인 생성 및 공유”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정보로 설명하였다(Wardle 2017).

Scheufele와 Krause(2019)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오정보와 허위정보로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 정의를 간단히 오정보를 잘못된 정보로, 허위정보를 의

도적으로 잘못되게 만들어진 오정보의 특정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cheufele and Krause 2019). 이들은 오정보라는 커다란 개념에 허위정보를 포함함으로써 가짜뉴스의 개념정의를 의도성을 구분해야한다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과 결을 달리했다.

Allcott과 Gentzkow(2017)는 가짜 뉴스를 돈을 벌거나 이념을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된 의도적이고 검증 가능한 잘못된 뉴스로 의도와 목적을 함께 넣어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했다(Allcott and Gentzkow 2017). 이들의 주장에서 가짜뉴스는 의도성에 더욱 강조된 개념인 것이다.

Carmi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20)는 가짜뉴스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허위정보, 오정보, 나쁜정보라는 세 가지 정보 차원에서 보고 있다. 이들은 오정보를 잘못된 정보이긴 하지만 어떤 피해를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정보로 정의하고, 허위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개인, 사회적 그룹, 조직이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정보로 정의하며 기존 학자들의 정의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으나 여기서 정보 유형 하나를 더 추가하여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개인, 사회적 그룹, 조직이나 나라에 피해를 주는데 영향을 주도록 사용되는 정보로 나쁜정보라는 개념을 제시, 정의하고 이 세 가지 정보들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Carmi et al. 2020).

가짜뉴스는 표준 뉴스 매체에 기생하는 동시에 그들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특히 피해가 크다. 또한 일부 검증되지 않은 뉴스의 초안이나 Facebook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가

짜 뉴스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뉴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이러한 정보의 순환을 왜곡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당사회에서 의도적 선전선동활동으로 존재하게 되고 사회현실을 왜곡함과 동시에 나아가 해당 사회의 민의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허윤철 2020).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공유와 합의의 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짜뉴스는 사실성이나 의도성보다 정보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포함하는 광의개념의 오정보”라 정의하고자 한다.

가짜뉴스의 심각한 파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팩트체킹과 같은 사후 대처였으며 법적 제도적 정비의 부재 속에 다양한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연구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McDowell과 Vetter(2020)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행동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 정보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의 방법이 시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가짜뉴스 판별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역정책을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McDowell and Vetter 2020). Lazer와 그

의 동료들(Lazer et al. 2018)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잠재적 대응방안으로 교육을 통한 이용자 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알고리즘과 봇을 이용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을 탐지하고 개입하는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새로운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orabi Asr와 Taboada(2019)는 리터러시 강화를 통한 이용자 대중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확산 분석 및 단축을 위한 기술을 적용해 수동체킹과 자동체킹으로 가짜뉴스를 탐지하고, 자질기반 접근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가짜뉴스의 텍스트를 분류해 방어하는 것 등의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Torabi Asr and Taboada 2019).

가짜뉴스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가짜뉴스의 법적인 규제를 강조하여 언급(윤성욱 2018)하거나 가짜뉴스 판별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 사회적 왜곡, 집중모델들, 신뢰성과 데이터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보다 광의적인 사회문제들까지도 고려해봐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Albright 2017)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나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짜뉴스에 선노출, 후대응의 과정이라는 대응방안의 한계점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동안 가짜뉴스는 계속적으로 확산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의 정보기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확산되기 전에 가짜뉴스의 판별을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용자 자신의 역량, 즉 리터러시 강화를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다.

### 2.1.2 이슈와 함의

문헌정보학·도서관계 입장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강조는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라는 데이터 오용의 극대화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대중의 리터러시 교육 구성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사회를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데이터화”와 같은 사회현상에 집중해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다양한 리터러시를 재조명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데이터화(Datafication)

가짜뉴스의 확산은 왜 이러한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대사회와 데이터의 발전 양상을 살펴봐야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우리 사회는 디지털 기반 사회로 정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보 소비와 유통의 특성이 크게 변화했고, 정보의 해석, 공유 및 활용 방식은 기술이 만들어낸 빠른 속도와 대량의 데이터에 노출되는 사회로 정착했다.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의 과잉 소비는 대중이 진실/사실을 판별하는 어려운 작업을 시도하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지하여 수집되는 정보만을 소비하게 된다는 소위 “탈 진실/탈 사실”사회로 이어졌다. 신뢰할 수 있는 사실보다 익숙한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양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 이용자 정보 행동 변화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사실 파악보다 구미

에 맞는 콘텐츠만 흡수하며 정치적 선전선동에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클릭수를 올리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뉴스 기사를 확산시키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Ohlheiser 2016).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그로 인한 각종 영향을 일컫는 현상으로 학자들은 이를 우리 사회의 데이터화(datafication)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Pangrazio and Sefton-Green 2020). Cukier는 그의 동료 Mayer-Schoenberger (2013)와의 연구에서 데이터화를 인간을 기록하는 것까지 이루어내는 현상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사회현상인 인간의 디지털 상호작용까지 수집, 분석하고 기록으로 변환해 저장, 활용하는 양상이 고착화된 사회를 데이터화 사회(Cukier and Mayer-Schoenberger 2013)라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사회행동이 기록된 데이터들은 의학, 교육, 과학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수집되고, 모아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하는 등 인간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Schadt 2015). 그러나 데이터화의 중요한 목적이 개별 사용자의 디지털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것인 만큼 그런 상호작용들이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토대로 활용되고 심지어 또 다른 행동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새로운 형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되고(Zuboff 2019)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디지털 데이터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집중하며 특정 집단의 대중을 프로파일링 하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그 효율성이 어느정도 검증된 이후부터는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수립이나 마케팅 활동 또한 증가하고 있다(Couldry and Mejias 2019).

이렇듯 데이터화는 시민 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거버넌스 및 권력으로 인한 사회 정의 문제의 고민 등 다양한 이슈들을 불러오며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있다. 데이터화가 우리 사회에 끼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들을 생각하면서 학자들이 개인 및 사회 수준 모두에서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화와 같은 사회현상이나, 데이터 자체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과정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한다면 가짜뉴스의 문제와 같은 데이터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Sander 2020). 다양한 리터러시 유사개념들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가 대표적인 리터러시 교육의 형태로 제안되고 있다(Sander 2020).

## (2) 다양한 리터러시의 재구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데이터화와 가짜뉴스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전략들은 법적인 규제 제정, 기술적·전술적 대응, 교육적 대응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Pangrazio and Sefton-Green 2020), 이 중 교육적 대응은 다양한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중심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의 중심에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문

헌정보학·도서관계가 데이터화와 탈진실/탈사실 사회 양상,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바로 여기 이용자 대중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에 있는 것이다.

리터러시라는 개념의 이해는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는 글쓰기와 같은 문학적 접근을, 어디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디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중점으로 두는 것처럼 각 문화마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리터러시 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비한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 리터러시 교육을 주장하는 연구들 중 대표적인 연구들이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광석(2020)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 유사한 개념들이 함께 쓰이고 있으나 단일의 통일된 쓰임새를 갖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간단히 이들 리터러시들은 첨단 디지털 정보 기술 발전 국면에 맞게 시민 개개인이 기술 활용 감각을 익혀야만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현대사회 지식인의 중요한 개인 역량으로 강조했다(이광석 2020).

가짜뉴스 확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결핍이라 주장하면서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이수범, 손영곤 2018), 탈사실의 시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 확산, 시민



의 표현에 있어 자율성 증가로 인해 가짜뉴스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시대에 맞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연구(Mihailidis and Viotty 2017)도 존재한다.

Ireland(2018)는 가짜뉴스의 파급 현실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경고하며 복제, 자가 전달이 만연한 최근의 밈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며 사서는 이용자가 신뢰성 높은 정보원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교육의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사회의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원의 신뢰성을 해치는 편견이나 논리적 오류를 판별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원 평가 능력 교육을 강화한다면 가짜뉴스의 판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Ireland 2018).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는 리터러시 중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데이터 리터러시이다.

이정미(2019)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데이터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상황 및 맥락에 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해 사회적 문제를 객관적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다른 리터러시 개념들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사회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리터러시 영역으로 이

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정미 2019).

Carmi와 그의 동료들(2020)은 데이터 리터러시의 결여로 인해 시민들의 위험은 증가되고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피해 또한 증가될 것이라 주장한다. 점차 더욱더 데이터화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데이터 리터러시의 결여는 사전예방적인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기존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내용은 오정보/허위정보/나쁜정보와 같은 가짜뉴스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 이슈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Carmi et al. 2020).

반면 Pangrazio와 Selwyn(2019)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개인이 관성적으로 생성한 ‘개인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정의하며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에 데이터 판별, 데이터 이해, 데이터 반영, 데이터 활용, 데이터 전술과 같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적절히 배합되는 다섯 가지 도메인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Pangrazio and Selwyn 2019).

Pangrazio는 Sefton-Green과의 후속연구(2020)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사회적 유용성을 언급하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데이터화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디지털 세계에서 민주 사회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될 수 있다 주장하였다(Pangrazio and Sefton-Green 2020).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한 논의는 UN을 중심으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UN은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가지 목

표를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데이터 리터러시 강화를 주장하면서 데이터 혁신을 위한 실천에 힘쓰고 있다(Data-Pop Alliance 2015).

결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 중 하나라고 확인하고 있으며(Batchelor 2017), 가짜뉴스 판별에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이 중요하고 이러한 기술과 사고력 확장을 가르치는 리터러시 전문가이자 교육자로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Eva and Shea 2018). Alvarez(2017)는 유사한 맥락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도서관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Alvarez 2017).

미디어, 뉴스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자신의 주제 분야에 적합하게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문헌정보학·도서관계 또한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짜뉴스 같은 데이터화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은 기존 리터러시 교육을 점검하고 리터러시 교육내용을 재구성해, 시대에 맞는 리터러시 교육안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요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리터러시 교육안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인류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조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IFLA의 행동지침은 인류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방향키가 될 것이다.

## 2.2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IFLA의 도서관 행동지침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환경파괴로 인해 병들어가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의 확산 속에서 일상의 멈춤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의 현실은 인류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가능성 있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 심각성은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더 강한 자각이 이루어졌으나 사실 이런 불안한 현실에 대한 우려는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명제가 UN에 의해 발의되고 이를 위한 전 세계의 협력적 목표가 수립된 이유이기도 하다. UN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는 총 17가지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평화·정의·효과적인 제도의 수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지구촌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 17개 목표는 빈곤과 기아의 퇴치,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평등·시설·제도적인 정비, 인류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을 주창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인류가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목표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5).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으로 도서관의 역할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지대하다.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모두가 해당 사회의 지식을 접근·확장시키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도서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커뮤니티 이용자 모두에게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이용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금 세대의 정보를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필요할 때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접근에 신뢰할만한 지역 네트워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제 도서관 연맹(IFLA)은 정보 접근, 보편적 리터러시, 정보통신 기술(ICT)에 대한 대중 접근 및 문화유산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UN2030 의제를 환영하며 이에 지지 목소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었다(Bradley 2016). UN2030의 의제와 비교해 IFLA의 4가지 행동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개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보통신기술 접근을 제공하며(UN의제 중 빈곤퇴치, 기아종식, 복리증진 등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접근하거나 이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에도 접근이 가능한 인프라를 도서관이 제공,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정보 제공), 둘째, 보편

적 리터러시의 구축·제공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및 평생 교육에 대한 기회 증진,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술훈련의 제공), 셋째 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인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유지, 미래세대에게 기록하고 보존한 문화유산 전승, 인간 생태계를 보호, 복구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IFLA 2018).

앞서 언급한 행동목표 중 두 번째,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제공을 통해 세계 어디에서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는 데이터화와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도서관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편적 리터러시는 사무 생산성 소프트웨어나 이미지 조작, 클라우드 기반 앱 및 콘텐츠, 웹 콘텐츠 저작 도구와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지식이라 정의(Alexander et al. 2017)한 보고서도 있으나 이는 IFLA가 제시하는 보편적 리터러시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IFLA가 정의하는 보편적 리터러시는 리터러시 역량 증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정보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지속가능한 도서관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보편적 리터러시 확충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Bradley 2016). IFLA 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우리가 고민하는 보편적 리터러시의 개념은 리터러시 교육이 인간의 인식 및 인류 자원의 관리 방식 개선을 위해 인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정보의 획득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과 성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커뮤니티를 구축 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기본적인 리터러시 습득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dedokun 2018).

다시 말해 IFLA가 주장하는 보편적 리터러시는 인간 사회 어느 지역, 어느 집단이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교육이 이루어져 이들이 데이터화된 현대 사회에서 UN이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같은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가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도서관은 모든 커뮤니티에 존재하기에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훈련의 장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리터러시를 본 연구에서 거론한 데이터 리터러시로 볼 것인가, 정보 리터러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이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심도깊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편적 리터러시를 기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터러시 중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고민으로 두고 IFLA가 제시한 보편적 리터러시를 지금과 같은 데이터화된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담은 오정보/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일원으로서의 기본역량으로 간주하고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과 제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3.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 및 제공

보편적 리터러시를 인간 사회 어느 지역, 어느 집단이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교육으로 간주하고 데이터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리터러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데이터 환경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편적 리터러시 제공 범위나 방향이 제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 보편적 리터러시를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 정도와 사회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먼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해 보편적 리터러시 제공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3.1 가짜뉴스의 사회와 보편적 리터러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앞세워 현대 디지털 사회를 규정하는 몇 가지 담론 중 가장 열띤 논의가 진행되는 이슈는 탈진실/탈사실의 사회양상과 데이터화 양상일 것이다. 데이터화로 인해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면 가짜뉴스로 인해 탈진실/탈사실 사회로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 양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진단은 필수적이다.

##### 3.1.1 데이터화 정도와 보편적 리터러시

데이터화는 해당 사회의 정보기술의 발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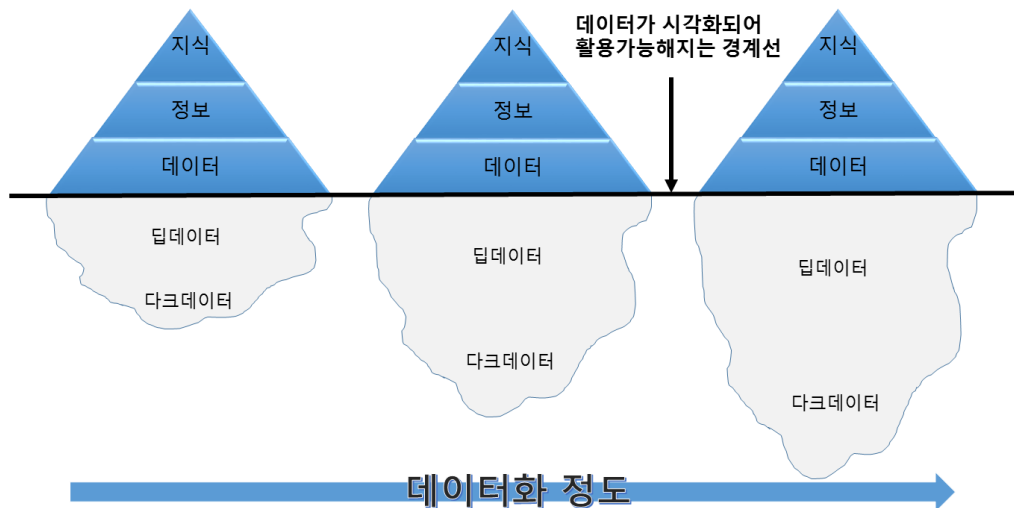
각종 산업,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어떤 사회의 데이터화는 다른 사회의 데이터화에 비해 월등한 속도로 빠른 진전을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졌다고 전 세계를 뭉뚱그려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편적 리터러시 또한 각 나라, 집단의 데이터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사회현상을 살펴볼 때 데이터화 정도나 가짜뉴스와 같은 정보왜곡 현상의 출현과 급속적인 확산 등이 나타나는 양상은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유사성은 있으나 가짜뉴스의 유형, 확산 양상 등은 개별사회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 정도에 따른 차이로 규정하고 이 데이터화 정도는 해당 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유형, 양, 질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전통적인 데이터, 정보, 지식 피라미드의 구조

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2>와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림 2>는 데이터 세계를 웹의 세계(일반웹과 딥웹, 다크웹을 빙산의 형태로 구조화한 그림)와 비교해 재구성한 것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의 정보처리과정은 동일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웹이 딥웹, 다크웹처럼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웹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데이터의 세계 또한 표면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세계가 존재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데이터화의 진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해당 사회의 데이터 표면에 떠오르지 않는 데이터(딥데이터, 다크데이터) 세계가 더욱 크게 존재하게 된다.

디지털 데이터가 기록된 후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고 시각화되어 활용가능하게 되는 지점을 딥데이터, 다크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두고 경계선 아래는 일반 이용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딥데이터, 다크데이터의 세계로 구분한다.



<그림 2> 데이터화 정도를 반영한 데이터·정보·지식 삼각형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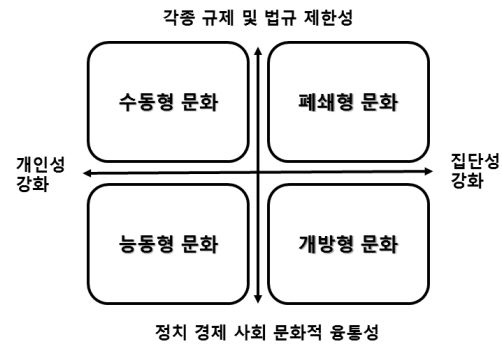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 정도에 대한 분석은 전체적인 데이터 구성의 규모와 양, 질,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유형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편적 리터러시의 방향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적 리터러시는 어느 사회나 시기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적절히 배치해야 해당 사회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리터러시 구성안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

### 3.1.2 사회·문화적 배경과 보편적 리터러시

가짜뉴스의 발생과 확산은 해당 사회의 이용자가 처해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당 문화의 특성은 가짜뉴스의 발생이나 확산을 빠르게도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발생과 확산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이렇듯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토대에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존재하고 이를 적절히 분석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면 해당 사회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안 구성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핵심적인 2가지 요소를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해당 사회의 문화적 개방성과 이용자 개인의 성향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문화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문화유형에 따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 개방성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방형/폐쇄형 문화, 수동형/능동

형문화로 구분 가능하며 수동형 문화와 폐쇄형 문화에 가까울수록 해당 사회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규제 및 법규의 제한성은 커져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능동형 문화와 개방형 문화에 가까울수록 정치 경제 문화적 융통성이 증가해 다양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적 성향이 강할수록 수동형, 능동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집단화 될수록 폐쇄형 또는 개방형 유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문화에 따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

이와 같이 해당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의 현실 사회에서는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에 반응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보편적 리터러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내용이 적절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 분석 및 이용자의 성향에 따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3.2 보편적 리터러시 제공의 방향

앞서 논한 것처럼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과 제공에는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 정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각의 상황, 대상 이용자 집단에 적합한 교육내용 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보편적 리터러시 구축의 시작점이다. 또한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제반사항의 확충이다.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내용 구성에 필요한 해당 사회 데이터화 정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이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필수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본다.

#### 3.2.1 데이터화 정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적 배경 및 이용자에 대한 조사 분석

보편적 리터러시 구성을 위한 기초 작업은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에 따른 데이터의 양, 질, 유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사회가 처해 있는 데이터 현실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데이터화 진행 정도는 어떠한지, 가장 활발하게 또는 침체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이며, 제도적 또는 법적 고려사항은 없는지, 사회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을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분석을 진행한다. 데이터화 정도가 빠른 사회의 경우 시각화되어 활용되는 데이터

에 비해 딥데이터나 다크데이터 규모가 월등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이 보이지 않게 활용됨으로써 과생될 영향력에 대한 고려도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가짜뉴스로 만들어져 활용될 때 오는 사회적 파장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배경 및 대상 이용자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조사·분석한다. Brashier와 Schacter(2020)는 가짜뉴스 시대에 노령화에 대한 연구에서 가짜뉴스에 노년층이 더 자주 노출된다고 주장하면서 노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인지능력저하, 사회적 위치변화,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다른 이용자 그룹에 비해 저조함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Brashier and Schacter 2020). 이와 같이 동일 사회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집단에 따라 다른 지적 수준, 생활환경, 교육환경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리터러시가 적절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속해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해당 이용자들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데이터화 정도와 이용자 환경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해당 사회의 이해에 바탕을 둔 교육내용을 추출하게 되고 이는 해당 사회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되어 보편적 리터러시 구성안의 내용을 채우는 핵심이 될 것이다.

#### 3.2.2 필수 제반사항 확충

보편적 리터러시의 구축은 이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다음 <표 1>은 보편적 리터러시 구축을 위해 도서관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을 간단히 제안한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보편적 리터러시를 위한 필수 제반사항

요소	내용
시설·설비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과 같이 보편적 리터러시 구현을 위한 공간 확충</li> <li>•교육을 지원할 각종 기계 및 설비의 확충</li> </ul>
인적 자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리터러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의 실현이 가능한 전문 인력의 확보</li> <li>•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li> </ul>
오픈 액세스 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뢰성 있는 무료 데이터, 정보원 확충</li> <li>•경제논리를 최대한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의미에서 오픈 액세스 자원의 지속적인 확대</li> </ul>
데이터 큐레이션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지침 확보</li> <li>•전문 인력의 데이터 역량강화</li> </ul>
사회적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실현에 대한 사회적 협의의 도출</li> <li>•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확충</li> </ul>
기관 네트워크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기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상호 지원 및 발전 모색</li> </ul>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항목 구성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교육 항목 및 내용 제안</li> <li>•데이터(정보원) 평가 내용 추가 및 수정 제안</li> <li>•데이터화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 추가 및 수정 제안</li> <li>•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내용 추가 및 수정 제안</li> </ul>

〈표 2〉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항목 구성안(Mandinach 외 2015를 바탕으로 재구성)

구분	내용
데이터화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화의 개념</li> <li>•데이터화 정도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당 사회의 이해</li> </ul>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li> <li>•이용자 집단의 일반적 이해</li> </ul>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데이터, 물질적·비물질적 아날로그 데이터</li> </ul>
데이터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이용 목적 수립</li> <li>•디지털 및 아날로그 데이터 생성 및 인지</li> </ul>
데이터 수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데이터 유형에 따른 데이터 수집</li> <li>•이용 목적에 따라 데이터 분석·평가·조직·종합·표현</li> </ul>
데이터 이용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li> <li>•결과 데이터의 전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li> </ul>
데이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의 신뢰성 평가</li> <li>•오정보/허위정보에 대한 판별</li> </ul>
데이터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 생성~공유 전(全)단계에서 고려</li> <li>•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li> </ul>

마지막 요소인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내용 구성안은 앞서 이 연구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 정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일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통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항목과 해당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 정도일 것이며 이를 다음 〈표 2〉와 같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항목 구성안으로 제안한다(〈표 2〉 참조). 이는



Mandinach와 그의 동료들(2015)이 제시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구성항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해당 사회 데이터화에 대한 이해 및 이용자에 대한 이해, 정보원평가 항목을 추가, 재구성해서 작성되었다(Mandinach et al. 2015).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내용은 다양한 다른 리터러시 교육내용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채워져야 한다. 여기서 차별성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이 ~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에 대한 습득을 위주로 구성되었다면 보편적 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은 덧붙여 해당 사회와 해당 사회를 살아가는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IFLA가 도서관에서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은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많은 노력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 주창하며 전 인류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보편적 리터러시란 “~하는 기술”의 의미를 벗어나 “해당 사회와 이용자를 이해하는 가운데 정보를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실현에 지원하도록 활용하는 이용자의 역량, 통찰력의 수준”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짜뉴스의 개념을 오정보/허위정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생산하는 사회의 양상을 데이터화 현상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화 사회에서 가짜뉴스와 같은 오정보/허위정보의 판별에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구축 및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개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연구문제 1: 가짜뉴스의 정의는 무엇이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불러오는 이슈와 그 함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 가짜뉴스는 오정보와 허위정보를 통칭하거나 개념적으로 사실성이나 의도성을 명확히 구분해 가짜뉴스로 개념화하는 등 다양한 개념 정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발생과 전파는 우리 사회의 데이터화가 가속되어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선발생 후처치의 대응이 계속되는 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이의 중요한 해결책은 가짜뉴스가 생성되어 이용자가 이를 접할 때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 통찰력에 있으며 이는 도서관계의 전통적 역할인 리터러시 교육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주장하며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연구문제 2: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인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명제이며 도서관은 이를 위해 건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용자를 양성할 책임이 있다. 이는 IFLA가 보편적 리터러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인류의 정보접근에 도서관계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UN의 명제와 IFLA의 지지선언을 연계해 살펴보고 보편적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창궐과 정보 활용의 오염을 막는, 나아가 민주사회의 대의 훼손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책임을 재조명하였다.

- 연구문제 3: 보편적 리터러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 보편적 리터러시는 해당 사회의 현실에 따라 교육 내용의 구성이 달라져야 하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의 데이터화에 대한 이해와 이용자 및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화 정도에 따른 우리 사회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정보·지식 삼각형을 차용해 도식화하였으며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용자 성향에 따른 데이터 커뮤니케이

션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가짜뉴스와 같은 데이터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은 적극적인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으로 가능하다 주장하며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실현을 위한 필수 제반 사항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편적 리터러시는 이와 같은 사회와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구 중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항목을 살펴본 후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의 구성항목을 재구성, 교육안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보편적 리터러시 교육 구성안은 교육 항목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화에 대한 이해와 해당 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 정보원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와 현대사회의 데이터화, 보편적 리터러시를 도서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험적 연구이다. 가짜뉴스와 도서관, 데이터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서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인식하고는 있으나 아직 국내외적으로 많은 고민과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큼 다양한 이론적 뒷받침과 많은 학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욱 풍부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주장들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고 보편적 리터러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미경. 2020. 플랫폼 데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격차: 디지털 불평등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이론』, 16(4): 5-45.
- [2] 김민정. 2019.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가짜뉴스 규제 관련 국내 법안과 해외 대응책에 나타난 용어 및 개념정의 비교. 『미디어와 인격권』, 5(2): 43-81.
- [3] 김형지, 정은령, 김은미, 양소은, 이재우, 강민지. 2020.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인식, 그리고 리터러시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31-267.
- [4] 윤성욱. 2018.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언론과법』, 17(1): 51-84.
- [5] 이광석. 2020. 미디어 이용자 패러다임의 재구성: '비판적 제작'의 기술 수행적 함의. 『한국언론정보학보』, 102: 71-102.
- [6] 이민영. 2020. 딥페이크와 여론형성-알고리즘의 권력화와 탈진실의 규제담론. 『미국헌법연구』, 31(1): 199-241.
- [7] 이수범, 손영곤. 2018.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기획자, 경험자, 비경험자 간 인식 차이: 상호지향성 모델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5(2): 213-257.
- [8] 이정미. 2019.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재접근 및 도서관 정보서비스에의 적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1): 159-179.
- [9] 코로나19 가짜뉴스로 1~3월 사이 800명 숨졌다. 동아사이언스. 2020.08.13.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006>
- [10] 허윤철. 2020.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 범위 인식의 조절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506-534.
- [11] Adedokun, M. O. 2018. "Information litera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of Management and Business Research*, 7(2): 460-466.
- [12] Albright, J. 201). "Welcome to the era of fake news." *Media and Communication*, 5(2): 87-89.
- [13] Alexander, B. et al. 2017. Digital literacy in higher education, part II: An NMC Horizon project strategic brief (pp. 1-37). The New Media Consortium.
- [14] Allcott, H. and Gentzkow, M.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11-36.
- [15] Alvarez, B. 2017. "Public libraries in the age of fake news." *Public Libraries*, 55: 24-27.
- [16] Batchelor, O. 2017. "Getting out the truth: The role of libraries in the fight against fake news." *Reference Services Review*, 45(2): 143-148.

- <https://doi.org/10.1108/RSR-03-2017-0006>
- [17] Bradley, F. 2016. "'A world with universal literacy' The role of libraries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UN 2030 Agenda." *IFLA journal*, 42(2): 118-125.
- [18] Brashier, N. M. and Schacter, D. L. 2020. "Aging in an era of fake new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3): 316-323.
- [19] Carmi, E. et al. 2020. "Data citizenship: Rethinking data literacy in the age of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and malinformation." *Internet Policy Review*, 9(2): 1-22.
- [20] Couldry, N. and Mejjias, U. A. 2019. *The Costs of Connection: How Data Is Colonizing Human Life and Appropriating it for Capital*.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21] Cukier, K. and Mayer-Schoenberger, V. 2013. "The rise of big data: How it's changing the way we think about the world." *Foreign Aff.*, 92, 28.
- [22] Data-Pop Alliance. 2015. *Beyond Data Literacy: Reinventing Community Engagement and Empowerment in the age of data*. [online] [cited 2018, 11, 21.]  
<<http://datapopalliance.org/wp-content/uploads/2015/11/Beyond-Data-Literacy-2015.pdf>>
- [23] Eva, N. and Shea, E. 2018. "Amplify your impact: Marketing libraries in an era of "fake new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57(3): 168-171.
- [2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2018.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 How libraries contribute to the United Nations 2030 Agenda*.  
<https://www.ifla.org/publications/node/10546>
- [25] Ireland, S. 2018. "Fake news alerts: Teaching news literacy skills in a meme world." *The Reference Librarian*, 59(3): 122-128.
- [26] Lazer, D., Baum, M. and Benkler, Y. 2018. "The science of fake news." *Science*, 359(6380): 1094-1096.
- [27] Mandinach, E. B. et al. 2015. "Ethical and appropriate data use requires data literacy." *Phi Delta Kappan*, 96(5): 25-28.
- [28] McDowell, Z. and Vetter, M. 2020. "It Takes a Village to Combat a Fake News Army: Wikipedia's Community and Policies for Information Literacy." *Social Media+ Society*, 6(3), 2056305120937309.
- [29] McIntyre, L. 2018. Post-truth. 김재경(역) (2019). <포스트트루스>. 서울: 두리반
- [30] Mihailidis, P. and Viotty, S. 2017. "Spreadable spectacle in digital culture: Civic expression, fake news, and the role of media literacies in "post-fact"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1(4): 441-454.
- [31] Nielsen, R. K. and Graves, L. 2017. "News you don't believe": Audience perspectives on

- fake news.”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17-10/Nielsen&Graves\\_factsheet\\_1710v3\\_FINAL\\_download.pdf](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sites/default/files/2017-10/Nielsen&Graves_factsheet_1710v3_FINAL_download.pdf)
- [32] Ohlheiser, A. (2016). “This is how Facebook’s fake-news writers make money.” *Washington Post*, 18.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intersect/wp/2016/11/18/this-is-how-the-internets-fake-news-writers-make-money/>
- [33] Pangrazio, L. and Sefton-Green, J. 2020. “The social utility of ‘data literacy.’”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5(2): 208-220.
- [34] Pangrazio, L. and Selwyn, N. 2019. “‘Personal data literacies’: A critical literacies approach to enhancing understandings of personal digital data.” *New Media & Society*, 21(2): 419-437.
- [35] Sander, I. 2020. “What is critical big data literacy and how can it be implemented?” *Internet Policy Review*, 9(2): 1-22.
- [36] Schadt, E. 2015. “The Role of Big Data in Medicine.” *McKinsey Quarterly*.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Pharmaceuticals%20and%20Medical%20Products/Our%20Insights/The%20role%20of%20big%20data%20in%20medicine/The%20role%20of%20big%20data%20in%20medicine.pdf?shouldIndex=false>
- [37] Scheufele, D. and Krause, N. M. 2019. “Science audiences, misinformation, and fake new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6(16): 7662-7669.
- [38] Torabi Asr, F. and Taboada, M. 2019. “Big Data and quality data for fake news and misinformation detection.” *Big Data & Society*, 6(1), 2053951719843310.
- [39]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the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30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 [40] Wardle, C. 2017. Fake news. It’s complicated. First Draft, 16: 1-1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Mi Kyung. 2020. “Data Divide in the Platform Data Ecosystem: Beyond digital inequality.” *Communication Theories*, 16(4): 5-45.
- [2] Kim, Min-Jeong. 2019. “From “Fake News” to “disinformation” - Comparison of Terminology and Conceptual Definitions in Korean Legislative Proposals to Curb Fake News and in the Initiatives to Curb Fake News Abroad.”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5(2): 43-81.

- [3] Kim, H-J. et al. 2020. "Fake News and Fact Check News Differences: Focusing on News Usage, Perception, and Literacy in Multi-Media Environm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101: 231-267.
- [4] Yun, Sung Oak. 2018.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17(1): 51-84.
- [5] Lee, Kwang-Suk. 2020. "Reconfiguring the Media User Paradigm: On the Technical Performativity of Critical Making."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102: 71-102.
- [6] Lee, Min-Yeong. 2020. "Deepfake as powerized algorithm and public opinion regulated by post-truth."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31(1): 199-241.
- [7] Lee, Soobum and Sohn, Youngkon. 2018. "Coorientational Analysis among Media Literacy Practitioners-Literacy Experienced Persons-Literacy Nonexperienced Person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5(2): 213-257.
- [8] Lee, Jeong-Mee. 2019. "Re-approach to the Concept of Data Literacy and Its Application to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1): 159-179.
- [9] 800 people were killed between January and March in the COVID-19 fake news. *East Asia Science*, 2020. 8. 13.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9006>
- [10] Heo, Yuncheol. 2020. "Influence of News Literacy on the Perceived Impact and Regulatory Attitude of Fake News: Definition of Fake News as Moderato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101: 506-534.